"태권도 옆차기 이렇게 배웠어" 6일 서울 올림픽 제2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WTF세계태권도 품새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나타웬 탄티나자타리(태국·왼쪽)가 첸웨이칭(대만)에게 옆차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IOC "올림픽 남북단일팀 적극 지원"

## 로게 위원장 등 3자 회동… "선수단 엔트리 확대 시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을 파견하는 방안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전폭적인 지지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남북한 올림픽위원회는 6일 새벽 스위스 로잔에서 자크 로게 IOC 위원장 주재로 3자 회동을 갖고 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파견에 원칙적인 합의를 재확인한 뒤 최대 관건이었던 선수단 구성방안에도 IOC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

이날 로게 위원장은 문재덕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장웅 IOC 위원, 문시송 서기장 등과 먼저 면담을 가진 뒤 김정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김상우 명예총무를 만났으며 3자 회동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최종 조율했다.

무엇보다 이번 로잔 회동은 단일팀 파견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선수단 구성방안에 대해 로게 위원장이 남북한이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각 종목별 국제경기단체(IFs)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엔트리 확대를 시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남북한은 지난 12월과 올 6월 개성에서 2차례 체육회담을 갖고 단일팀의 단기와 단가, 훈련방안 등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선수단 구성 비율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남측은 국제경기단체 랭킹이나 선발전을 통해 대표선수들을 뽑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5-5 비율로 선수단을 구성하자고 주장해 양측이 팽팽히 맞섰었다.

그러나 이같은 애로점에 대해 로게 IOC 위원장이 엔트리 확대를 통한 해소 방안을 제시, 남북한은 단일팀 구성을 위한 실마리를 풀게 됐다.

또한 최대 쟁점의 해결을 약속한 로게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내 남북체육회담 재개를 촉구하며 단일팀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3자 회동이 끝난 뒤 김정길 KOC 위원장은 현지 외신들과 인터뷰에서 "오늘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회의를 가졌다. 아직 협의할 점은 남아 있지만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 2연승 조 1위

### 아시아 U-17 챔피언십축구

17세 이하 한국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네팔을 잡고 기분 좋은 2연승을 질주했다.

한국은 5일 오후 싱가포르 잘란 베사르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아시아 U-17 챔피언십 싱가포르 2006' A조 2차전에서 네팔을 상대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싱가포르와 첫 경기에서 3-1로 승리를 거둔 뒤 네팔전에서 또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으로 일본(1승1무·승점4)을 제치고 A조 1위에 올랐다.

한국의 일방적인 공격이 예상됐지만 경기 초반 네팔의 파상 공세에 밀리면서 혼전이 펼쳐졌다. 한국은 전반 19분 배천석(포철공고)의 슛이 골문 왼쪽을 살짝 빗나가는 등 골운마저 따르지 않았다.

네팔의 역습과 밀집수비에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던 한국은 전반 45분께 후방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페널티지역에서 수비수를 맞고 흐르자 설재문(태성고)이 침착하게 볼을 잡은 뒤 오른발 터닝슛으로 선제 결승골을 뽑아내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한국은 후반 25분 주성환(광양제철고)과 후반 27분 배천석의 슛이 잇따라 골문을 외면했지만 후반 36분 김정현(현대고)의 프리킥을 주성환이 헤딩슛으로 추가골을 터트리며 2-0 승리를 완성했다.

## 스포츠중계

7일(목)

▲메이저리그<클리블랜드-토론토>(08 : 00·Xports)

▲삼성 PAVV 여자골프대회 2R(13 : 00·MBC ESPN)

▲코리안투어 삼성 베네스트오픈 1R(14 : 10·KBC)

▲일본프로야구<한신-요미우리>(17 : 45·Xports)

▲아시아 청소년 축구<한국-일본>(17 : 50·KBS1)

▲AFC U17 챔피언십<한국-일본>(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현대-두산>(18 : 00·KBS SKY Sports), <KIA-삼성>(18 : 30·MBC ESPN), <롯데-SK>(20 : 00·SBS스포츠)

8일(금)

▲US 오픈 테니스(00 : 00·Xports)

▲PGA투어 캐나디안 오픈 1R(04 : 00·SBS스포츠)

■ 마테라치가 밝힌 '지단 박치기' 진실

# "유니폼 준다는 말에 모욕감 네 누이가 좋겠다고 말했다"

### "지단에 사과할 이유없어"

지난 7월10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축구 결승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한 지네딘 지단(34·프랑스)의 박치기 사건에 얽힌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

'아트사커 마에스트로' 지단의 분노를 촉발해 현역생활 마지막 무대에서 불명예 퇴장을 당하도록 한 이탈리아 축구대표팀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33·인터밀란)는 프랑스-이탈리아 월드컵 결승 리턴매치를 하루 앞둔 6일 본인의 입으로 당시 지단과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마테라치는 이탈리아 스포츠 일간지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와 인터뷰에서 월드컵 결승전 연장 후반 5분 지단이 머리로 자신의 가슴을 들이받기 직전 자신이 지단의 유니폼을 끌어당기자 지단은 "(유니폼을) 갖고 싶으면 나중에 줄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마테라치는 "난 지단의 말에 '(유니폼 대신) 네 누이가 더 좋겠다(prefer his sister)'라고 응수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이다. 좋은 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라운드에선 그보다 더 나쁜 말도 한다는 걸 증명해 줄 선수들이 수십명은 된다"고 덧붙였다.

지단과 마테라치 사이의 대화 내용을 둘러싸고는 그동안 '더러운 테러리스트라고 했다', '지단의 어머니를 매춘부로 지칭했다'는 등 갖가지 억측이 나돌았다.

마테라치는 지단과 화해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도 평화 조약을 맺는데 지단과 내가 못할 게 뭐냐"면서 "남자들 사이의 평화조약은 크게 떠벌릴 것이 없다.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있고 지단이 원하면 우리 집 주소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단이 유니폼을 나중에 주겠다고 한 말도 내겐 모욕이었다. 그가 내게 사과하지 않았기에 나도 사과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그의 누이에게 사과할 순 있다. 난 지단이 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마테라치는 이 사건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5천 스위스프랑(387만원)의 벌금과 A매치 두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단은 벌금 7천500 스위스프랑(581만원)과 3경기 출전 정지를 당했지만 이미 현역에서 은퇴해 의미는 없다.